CEO Interview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 경력

2022~현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19~2022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
2013~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2018~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금연구센터장
2017~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데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일자
2023년 5월 26일(금)
장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서울)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해식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립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취·창업과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현금 및 서비스를 지급하는 다른 급여와 달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는 상담, 교육, 훈련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 일 경험을 쌓고,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 교육과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립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16개 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자활지원 사업의 개발과 평가, 조사·연구 및 홍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도·평가를 수행합니다. 보장기관의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 참여자와 자활기관 종사자에게 자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활근로, 자산형성,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무이자, 빈곤층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개발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활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기업이 일반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개발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고도화 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은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원은 2010년부터 자산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빈곤층, 청년에게 금융·자산관리를 교육하는 특화 자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발원은 2022년 '자산형성포털'을 개통해 자산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교육 아이템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재정형성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 제공 접점인 자활센터, 그리고 이를

취·창업과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발·지원

지원하는 개발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원은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와 통계 생산, 연구포럼 개최를 통해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고, 자활사업 성과 홍보로 우수한 자활사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으로 임용되셨습니다. 앞으로 개발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통합, 행복과 삶의 질을 큰 연구 주제로 잡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 소득보장 제도로서 빈곤 정책, 연금 정책, 자활사업 등을 연구하면서 2018년 제1차, 2021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자활사업 목표 수립을 위해 자활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한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원은 그간 자활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키워왔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도 조금씩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지원기관으로서 개발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자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계획-실행-점검-개선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 · 외적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국민께 자활의 역할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에 일의 소중함, 일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개발원이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취임식 때 개발원의 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발원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환경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자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돌봄 · 간병 사업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방역, 소독 같은 사업까지 자활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경험하는 문제 해결에 나섰고, 사회적 위험의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자활기업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장비, 시설 및 임대료 등 지원을 받아 창업한 자활기업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600여 명이 취업취약층입니다. 자활기업은 취업취약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합니다. 개발원은 이러한 자활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규모화, 지역특성화, 업종 간 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우리 광역자활 인프라와 함께 확장해,

취약계층의 생애주기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 사업은 단순한 금융 상품만이 아닌 꿈, 희망, 미래를 제시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발원은 체계적인 교육, 홍보, 관리를 통해 가입자가 3년의 가입자격을 잘 유지한 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려 합니다. 참여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활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잦은 이직, 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째, 자활사업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 분석과 연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자체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빈곤층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빈곤율은 2차 분배가 확대되면서 점차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근로연령층의 빈곤율도 문제입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낮은 사회이동성을 보이고,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사회통합 저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연령층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곤층 중에서는 근로능력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제한된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활 일자리는 이렇게 빈곤층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급여를 받고, 또 사업단 매출의 일부를 자립성과금으로 받아 소득을 확보합니다. 자활 일자리를 통해 근로 역량을 키워, 창업에 나서거나 취업하기도 합니다. 자활 참여 중에는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탈수급 시에는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렇듯 자활 일자리를 통해 탈빈곤에 이르는 희망사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한 자활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 12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568명, 6개 민간기업과 연계해 1,699명,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321명의 자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간 기부를 받아 2022년 이후 자산형성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장려금을 신설해 총 8,796명에게 2,111백만 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청년자산형성 통장의 본인 저축률이 14.1%p 향상됐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원은 일을 통한 복지로서 자활 일자리 제공에 나서고, 자산형성

> "환경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자리 개발"

자활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사업의 활성화로
'약자복지' 실천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약자복지'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개발원은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사업단의 신(新)표준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에코워싱'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또 자활사업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어르신, 취약계층 아동 대상 도시락 제공 서비스에서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수거, 세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됩니다. ESG 경영의 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종료되는 3년 뒤 개발원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는지와 함께 기관 직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뒤 개발원과 직원들의 역량은 분명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인재로 거듭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활 참여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와 한계를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자활 정책 포럼'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활 현장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근거를 바탕으로 울림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개발원과 함께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자활 현장은 참여자, 보장기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원은 자활 현장의 사업계획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원이 중앙 자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해, 자활사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활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우리 개발원 직원들과 자활 참여기관 종사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공경제』 독자 여러분께서도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경제적 자립을 응원해 주시고, 개발원이 자활복지서비스 혁신 선도기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